

[21~2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-2011.11

⑦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, 인간관,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. 반면 현대의 ⑧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.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.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.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?

뮤지컬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, 이것들은 내용, 즉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.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르면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된다. 이러한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,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어느 한 요소라도 ⑨ 소홀히 한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.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극적 서사를 지니기에 훌륭한 극본이 요구되고, 그 내용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기에 음악과 무용도 핵심이 되며, 이것들의 효과는 무대 장치, 의상과 소품 등을 통해 배가되기 때문이다.

그런데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 기준의 충족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. 가령 A. L. 웨버는 대표작 「캐츠」의 일차적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불거리와 들을 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 두었다. 「캐츠」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. S.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,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햄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. 뮤지컬을 ‘레뷰(revue)’,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⑩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.

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일 때,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. 물론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.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도 여전히 지지를 얻는 예술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. 이 입장에 준거할 때 체계 이론 미학의 예술관은 예술을 명예롭게 하는 숭고한 가치 지향성을 아예 포기하는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.

21. ⑦과 ⑧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?

- ① ⑦은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모두 중시한다.
- ② ⑧은 자율적 예술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론이다.
- ③ ⑦과 ⑧이 적용되는 예술 장르는 서로 다르다.
- ④ ⑧은 ⑦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류 이론이다.
- ⑤ ⑧은 ⑦에 비해 더 진지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한다.

22. 「캐츠」에 대한 감상 중 ⑩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?

- ① 멋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,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어요.
- ② 감독이 고양이들의 등장 장면에 채택한 연출 방식이 작품의 주제 구현을 오히려 방해해서 실망했어요.
- ③ 늙은 암고양이의 회학이 담긴 노래의 가사는 들을 때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켜요.
- ④ 기발한 조명과 의상이 사용된 것을 보고, 원작의 심오한 주제에 걸맞은 연출 방식이구나 하며 감탄했어요.
- ⑤ 의인화된 고양이들의 삶과 내면이 노래들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, 인간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.

23. 윗글을 바탕으로 <보기>의 ⑪과 ⑫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종합 예술의 기원인 ⑪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,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. 반면 ⑫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, 심오한 지적·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.

- ① ⑪는 즐거움의 제공을, ⑫는 교훈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군.
- ② ⑪는 자기 연관적이지만, ⑫는 외적 연관에 의해 지배되는군.
- ③ ⑪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, ⑫는 미적 유희를 추구하는군.
- ④ ⑪과 ⑫는 모두 고전적 기준에 따라 높이 평가될 수 있군.
- ⑤ ⑪과 ⑫는 모두 각각의 시대에 걸맞은 ‘레뷰’라고 볼 수 있군.

24. 문맥상 ⑪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멸시(蔑視)한다면
- ② 천시(賤視)한다면
- ③ 등한시(等閑視)한다면
- ④ 문제시(問題視)한다면
- ⑤ 이단시(異端視)한다면